

전일동향

전일대비 1.00원 하락한 1,506.80원에 마감

20일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.20원 상승한 1,509.00원에 개장했다.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투매에도 고점 인식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 시도 제한되며 전일대비 1.00원 하락한 1,506.80원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 장중 변동 폭은 9.6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48.17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증가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509.00	1513.40	1503.80	1506.80	1509.70
엔화	947.67	951.31	938.87	948.17	-	
유로화	1749.71	1756.00	1734.06	1751.27	-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	-0.54	-3.65	-7.91
결제환율(수입)		-0.28	-2.3	-5.71	-11.88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금일 전망

위험선호 회복에...1,490원대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1.4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506.80) 대비 9.20원 하락한 1,496.2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시장 전반의 위험선호 심리 회복에 하락 전망한다. 간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발언하면서 종전 기대감이 재확인되었다. 이에 WTI는 배럴당 98.26달러로 급락하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4.58%로 7.9bp 하락하며 고금리 부담이 완화되었고, 뉴욕증시는 위험선호 회복과 주요 기술주 실적 호조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다. 여기에 전일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파업 계획 중단된 점 또한 위험선호 심리를 추가 자극하여 금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주식 매도세 다소 진정되며 수급 부담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. 이러한 그간 강달러와 원화 약세를 자극했던 매크로 부담이 완화되며 금일 달러/원 환율은 하방 압력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.

다만, 간밤 공개된 지난 4월 FOMC의사록을 통해 연준 내 매파적 기류가 확인된 점은 달러 지지력으로 작용하여 환율 하락 폭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491.75 ~ 1503.00 원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29309.51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9.20원 ↓
	■ 美 다우지수 : 50009.35, +645.47p(+1.31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59.17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4795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